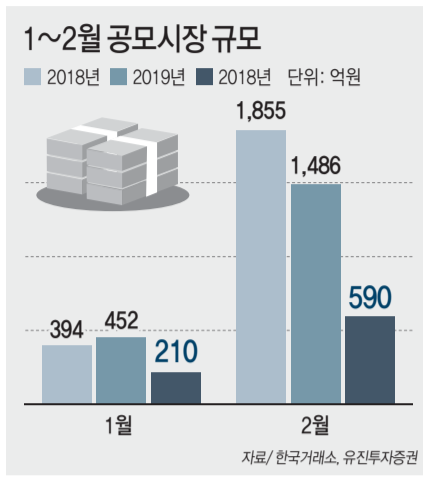


IPO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기 속출 속 ‘쏠림’ 우려

(하반기)

기관투자자 설명회 취소 잇따라
1월 공모금 210억, 2월 590억
지난해 동기비 절반도 못 미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증시 폭락으로 기업공개(IPO) 시장도 잔뜩 위축됐다. 이달 들어 3개 기업이 IPO 공모 일정을 연기하며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2분기까지 상장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하반기 IPO ‘쏠림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혁신 기업을 발굴해 지난해보다 신규 상장사를 더 늘리겠다”던 한국거래소의 공언도 코로나19 앞에 공멸불이 됐다.

◆“IPO도 코로나 팬데믹”

연초 IPO 시장은 시골벽적했던 지난해 4분기와 분위기가 정반대다. 총 공모금 액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월

210억원, 지난달 59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공모금은 1월 452억원, 2월 1486억원을 기록했다. 그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비상장사들이 시장에 들어갈 시기를 늦추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관투자자 설명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기업설명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기관투자자 설명회 일정에 대한 차질은 수요 예측 기업의 공모가 책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최근 공모일정을 취소한 예비상장사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기관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면서 “상장사 입장에선 공모가를 가능한 높게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이런 시기에 누가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투자자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어졌다. 운용사 인력들과 증권사 연구원들도 기업탐방을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설명회(IR) 컨설팅 전문기업 담당

자가 기업설명을 전화로 들을 정도다.

국내 한 IR 업체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대안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면 미팅하고는 정보 전달 부분에서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쟁자가 줄다보니 수요예측은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상장한 위세아이텍, 서남, 레몬의 평균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920대 1에 달했다. 608대 1 수준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평균 경쟁률이 훨씬 높아졌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같은 기간 569대 1 수준이었던 전년 2월보다 훨씬 높아진 922대 1을 기록했다.

◆상장 시기 놓고 조율 중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대어’들은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상반기 상장이 예상됐던 호텔롯데가 대표적이다. 호텔·레저 업황이 불황을 겪고 있는 데다 최

근엔 주요 수익원인 면세점 사업 실적까지 부진하며 공모가를 장담할 수 없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상장 시점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카드 업계 불황을 겪고 있는 현대카드, 공연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역시 실적 타격이 예상되며 상장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카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IPO 쏠림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해 경우 신규 상장사의 46%(35개사)가 4·4분기에 집중됐다. 이 기간의 공모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연간 공모 규모의 52%에 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슈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 관심이 지배적이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상반기 수도권 2기 신도시 1.5만가구 분양

부동산 대책 비규제지역 주목
경기 양주, 인천 검단 등 관심



(주)유리E&C '양주옥정 노르웨이숲' 조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분양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도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의 물량 공급은 이어진다. 특히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 등으로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신도시 수요가 시장의 관심사다.

1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8곳, 1만5758가구다. 이 가운데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경기 양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에서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4곳, 1만3234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양주(7곳, 6942가구) ▲평택고덕(3곳, 2463가구) ▲인천검단(3곳, 1903가구) ▲파주운정(1곳, 1926가구)다.

비규제지역은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자금 마련이 쉽다. 청약 시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에 구애 받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년이면 1순위 접수가 가능하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의 대출규제도 피할 수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20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비규제지역 시세가 오를 것”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 양상이 보일 경우 규제의 영향권에 들 수 있는 만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의 내집 마련 시기는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경기양주, 인천 검단, 파주운정 등의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유리E&C는 오는 12일까지 경기 양주옥정신도시 A-20(1)블록에 공급하는 ‘양주옥정 유리노르웨이숲’ 72~84㎡, 1140가구의 정당 계약을 진행한

다. 단지는 전 세대 4베이(Bay) 판상형 구조와 3면 발코니 확장(72㎡ 제외)이 적용된 중소형 확장 평면으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등기 전 전매도 가능하다.

제일건설은 오는 4월 경기 평택고덕 신도시 A41블록에 공급하는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75~84㎡, 877가구를 분양한다. 교육 특화구역인 에듀타운,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다. 간선급행버스인 BRT정류장이 인근에 들어서며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진다.

/이규성 기자 peace@

삼성물산, 韓 업계 첫 CIO 100 어워즈 수상

사고예방 디지털 혁신 시스템
위험요소 사전 차단 높은 평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9일 글로벌 IT 미디어·리서치 전문기관인 IDG가 주관한 ‘2020 CIO 100 어워즈’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CIO 100 어워즈’는 1987년 시작, 매년 1회 전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 단체들을 평가하여 IT기술을 통해 높은 사업가치를 창출한 100개 회사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CIO 심사위원들은 심사

대상 기업 혹은 기관이 각 산업군에서 얼마나 혁신적인지, 해당 혁신이 조직에 어떤 영향과 사업성과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한다.

삼성물산은 ‘건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통합 건설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우 기자

현대건설, 대형사 최초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환급

‘힐스테이트 녹양역’ 조합에
절감된 사업비 16억 돌려줘

현대건설이 국내 대형건설사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를 조합에 돌려줄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말 진행예정인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에서 사업비 16억원을 조합원에게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주택조합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체비

지(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토지) 약 3만3000㎡를 매입해 758가구를 건립한 단지로 녹양역과 가능역을 각각 도보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급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달리 조합원 모집 이후 일정계획대로 입주까지 완료되는 사업장이 약 5~10% 정도이며, 그중에서도 통상 입주 시에는 사업 진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 건축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모집 당시 책정된 사

업비보다 추가된 분담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힐스테이트 녹양역은 이런 일반전인 사례와 다르게 사업 추진과 동시에 토지 확보 및 인허가를 확정했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후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후 2015년 6월 조합원 모집 개시 이후 1년 만에 공사 착공, 2018년 11월에 입주를 완료했으며, 이번 해산총회에서 잔여사업비 16억원의 환급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미디어 육아’ 주목 ‘신비아파트’ 완구 라이선스 독점 수혜

(애니메이션)



장난감 전문기업 |오로라|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관련 완구·서적 등 매출확대 예상

“지난 5일 첫 방영한 ‘신비아파트:시즌3’는 지상파를 포함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0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미디어 육아’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신비아파트’ 완구 유통 라이선스를 독점하고 있는 오로라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로라는 ‘신비아파트’의 공동투자사로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완구 제조와 판매 라이선스를 독점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신비아파트 시청률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관련 완구, 서적, 보드게임 등의 유통매

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최 연구원이 추정하는 오로라의 올해 신비아파트 관련 매출은 약 270억원으로 전년 220억원(추정)보다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외 매출비중이 높은 특성상 원·달러 환율 상승도 실적에 긍정적이다. 오로라의 주요 콘텐츠인 ‘유우와 친구들’, ‘큐비즈’ 등 관련 매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면서 해외 매출비중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오로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826억원, 19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5%, 17.8% 상승할 것으로 최 연구원은 전망했다. 전국 휴원·휴교령에 따라 가정 내 애니메이션 시청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5월 어린이날에 신비아파트 흥행 수혜가 기대대다.

리서치알음은 오로라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1만6000원을 제시했다. 2020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1340원에 주가수익비율(PER) 12배를 적용한 결과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